# “세계인들 보고 반할 ‘불교뮤지컬’ 만들겁니다”

##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만드는 이 진 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는 예수의 마지막 7일 간을 경쾌한 락 음악으로 그려낸 뮤지컬이다. 예수의 이야기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볼 수 있어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는 항상 상연되는 스테디셀러다. 반면 부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뮤지컬은 국내나 해외에서나 찾아보기 힘들어 공연문화를 즐기는 불자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에는 불교 뮤지컬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불자 음악가인 이진구 무쏘의 뿔 대표가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Under the Bodhi Tree)’를 제작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버전으로 제작되는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는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보리수나무 아래서’에서 소개되는 30여 곡들은 모두 이 대표가 작곡했고 한국어 가사는 작사가인 부인 송연경 씨가 달았다. 영어 가사는 매튜 메자카파와 크리스틴 리가 맡았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는 10년의 산고 끝에 나온 작품이다. 이 대표는 3년을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스님들의 자문을 들었으며, 3년을 대본과 작사 작업에 매달렸다. 이후 3~4년을 대중화를 위해 곡과 대본들을 다듬었다.



지난 10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보리수 나무 아래서’ 워크숍에서 배우들이 열연하고 있다.

**부처님 일대기, 뮤지컬로 제작**
**10월 美서 워크숍, 호응 높아**
**내년 브로드웨이서 상연 계획**
**한국선 18일 뮤지컬 갈라쇼도**

“1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생애를 면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었고, 공부를 토대로 각본·작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영어 가사를 맡았던 분들 중 어려워서 두 손들고 나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생애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10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맨해튼 뉴욕대 대학원 티시 스쿨 블랙박스홀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시사회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지 반응은 매우 좋았다. 프로듀서가 바로 붙었고, 상연 극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현재 매주 현지 프로듀서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연 날짜를 정하고 급하게 일정을 맞추는 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갑니다. 느리지만 매우 안정적입니다. 최종 목표는 내년 봄 오프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상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부처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즐겁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서다. 뮤지컬에 사용된 곡들의 장르도 락, 재즈, 펑키, 팝페라 등 대중적이다. 한국인이 제작한 만큼 한국 전통 음악도 가미됐다. 한국불교의 범패가 뮤지컬에 사용됐고, 민요 옹헤아, 꼭두각시 리듬도 곳곳에 삽입됐다.

“세계인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관객층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인이 보고 반할 뮤지컬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요.”

이 대표는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의 단면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을 한국에서 준비 중이다. 그가 이끄는 불교예술단 무쏘의 뿔은 제6회 정기공연에서 뮤지컬 갈라쇼 형태로 ‘보리수 나무 아래서’를 공연한다.

11월 1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의 수록된 6곡을 선보인다. 또한 불자 팝페라 성악가 김명온 씨를 비롯해 한마음선원 합창단, 불교방송국 합창단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010)3278-8511, (010)3668-6699 신성민 기자

# 장갑으로 표현한 ‘色卽是空 空卽是色’ 이치

## 정경연 교수, 11월 29일까지 현대화랑서 개인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던 것은 ‘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손으로 글을 쓰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예술을 했다. 또한 손은 사용자의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공사장과 농사로 인한 투박해진 노동자의 손부터 대통령의 손까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손을 보호·보온하는 장갑 안의 손은 손일뿐이다.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장갑 안에서 손은 평등해진다.

섬유회화와 ‘장갑 작가’로 잘 알려진 정경연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前 불교여성개발원장)는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갑을 통해 다양한 감성들을 표현한다. 정 교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11월 29일까지 현대화랑에서 열린다.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2000년대 초반의 모노톤의 작업으로 시작해, 1990년대의 설치와 비디오 작업으로 각 종교와 세대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근작을 통해서 다양한 색과 재료를 연구함으로써 ‘일상적인 오브제의 조형화’라는 일관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회화작품과 설치작품, 비디오 작품 등 총 30여점으로 구성된다.

정 교수가 자신의 작품 오브제로 ‘장갑’을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모정 때문이다. 홍익대 2학년 재학 중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정 교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내준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면장갑이 들어있었고, 이내 눈물이 쏟아졌다. 행여나 손이 틀세라 보내준 어머니의 마음이 떠오르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부터 면장갑을 끼고 새벽부터 바삐 일하는 환경미화원, 공사장 노동자 등 수많은 손과 장갑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이후 정 교수는 장갑을 통해 다양한 감성들을 표현했다.

정 교수가 40년을 해온 장갑을 통한 조형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한 개의 면장갑을 4개 혹은 5개로 영역으로 분할해 각각 염색을 하거나 일일이 물감으로 채색을 한다. 이후 말리고 찌고 다림질하고 캔버스에 붙이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작품 한 점을 완성해 낸다.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정경연 홍익대 교수.

**일상적 오브제들을 조형화**
**“창작 작업은 수행의 일환**
**〈반야심경〉서 작품 영감을”**

이 같은 지난한 작업을 정 교수는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는 작품의 영감을 〈반야심경〉에서 찾는다고 말한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기본 개념이 함축된 작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뢰감을 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의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 ‘반야심경’에 대한 수행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제목이 무제(Untitled)나 조화(Harmony) 등인 이유도 눈길을 끈다. 어떠한 명제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작품 감상의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나의 작품 제목인 ‘무제’는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명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중들이 느끼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이면서도 추상적으로 작품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02)2287-3591 신성민 기자

# 線으로 禪을 보이다

## 전통문화대 교수 단체전 ‘선의 미학’展

**오는 20일까지 불일미술관서**
**전통 회화 교수 단체전 ‘처음’**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 전통미술공예학과 권지은 교수와 출강 강사 7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전통회화 작품전시회 ‘선(線)의 미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화 작품으로 전통 회화의 맥을 잇고 있는 권지은 교수를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의 전수교육조교 최문정, 이수자 김석곤 등 모두 8명이 함께 한다. 이들은 전통회화 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전통의 재해석과 함께 현대의 감성에 맞게 풀어나가는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과 장인이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전통미술을 선도하는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의 주제인 ‘선(線)’은 미술의 기본요소로 전시 작품들 속 모든 선은 화면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인체의 윤곽선, 옷의 문양선, 장식물의 인공선 등을 작가의 의도대로 명분 있게 쓰임을 다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선은 유려함과 견고함을 널리 보여주며 전통 회화의 새로운 장을 보여준다.



김석곤의 ‘佛금동미륵보살반가상’

특히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빛의 형상으로 표현한 ‘佛금동미륵보살반가상’, 와전 석문과 종정 금문의 명문을 선별하여 각 화면에 맞게 구성한 ‘종정와전명임모도’ 등은 눈길을 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그간 학교 전임교수의 개인별 작품 전시회는 꾸준히 개최됐으나, 전통 회화 전공 교수와 강사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 회화에 대한 생각과 표현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전통의 현대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